

일주문



강로계단 보살계 수계법회
부산 감로사 주지 혜충 스님은 11월 2-6일 감로사에 '천화유원 감로계단'을 설치하고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종교간대화학회 공동대표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가톨릭 대 박일영 교수 등과 함께 10월 27일 출범한 한국종교간대화학회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노인 돕기 '일일찾집과 바자회'
통도사 자비원 이사장 현문 스님은 11월 2일 통도사 일주문 앞에서 소외노인 돕기 '일일찾집과 바자회' 행사를 개최했다.



청화 스님 2주기 추모법회
곡성 성륜사 주지 도일 스님은 11월 20일 오전 10시 청화 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061)363-0081



신라문화원 초청 법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 신라문화원 초청으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법문을 한다.(054)774-1950



석주당 정일대종사 1주기 법회
운양 보문사 주지 송운 스님은 11월 4일 대웅전에서 석주당 정일대종사 열반 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무의탁 노인 돕기 일일바자회
서울 육수복지관장 상덕 스님은 10월 29일 복지관 주차장에서 무의탁 노인 겨울나기를 위한 일일바자회를 개최했다.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창립
진각종 포교부장 최정 정사대구 불정 심인당 주교는 최근 열린 제16차 정기 이사회에서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창립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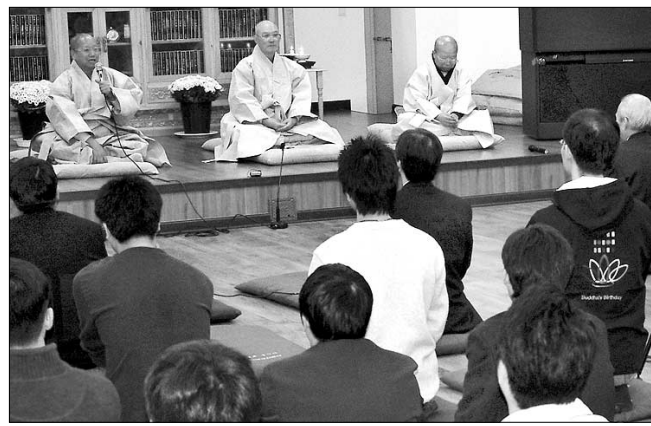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장 재선출
한국불교학회장 이명래 교수(충남대 철학과)는 10월 21일 충남대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직후 열린 평회의에서 학회장에 재선출됐다.



출판기념회 개최
경원대 미술대 윤범모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11월 9일 오후 5시 서울옥션센터에서 <한국미술에 삼가 고함> 등 저서 3권의 출판기념회를 연다.(02)720-1020

조계종 원로의원 지혜·진제·동춘 스님 본사 내방



조계종 원로의원 수석부회장 지혜 스님과 원로의원 동춘 스님, 진제 스님이 11월 3일 현대불교신문사를 내방, 법당에서 김광삼 사장과 100여명의 임직원들에게 격려법문을 했다. 지혜 스님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현대불교'의 공로가 크다'고 치하했고, 진제 스님은 '현대불교가 불자들이 심법을 밝히는 데 노력한다면 불법은 저절로 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동춘 스님도 '불교를 바로 알고, 널리 퍼는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내 생의 목표는 난치병 치료 기술 개발”

황우석 교수 전등사에서 '불교와의 인연' 밝혀

“18년 전, 사망 확률이 70%가 넘는 중병으로 며칠씩이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할미꽃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문안 온 친구의 제안을 받고 전등사를 찾게 됐습니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사진)가 10월 29일 강화도 전등사(주지 장운)에서 열린 '2005 삼랑성 문화축제'에 초대받아 800여 사부대중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인기 MC 임백천씨와의 대담형식으로 들려주었다. “그 때 처음으로 사찰에서 108배를 해봤다”는 황 교수는 “내가 살아난다면 매달 한 번씩 이곳 전등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러 찾아오기로 다짐했다”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황 교수는 학자로서의 각오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 육체의 생은 이미 18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역사에 뭔가 의미 있는 한 점을 찍고 떠나려는 부처님의 뜻인 것입니다.” 황 교수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나의 생의 유일한 목표”라며 불자학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황 교수는 세간의 지나친 관심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과학계가 많이 어렵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외길을 걷는 심정으로 연구하지만 때때로 자괴감에 빠진다”며 “하지만 세상에 이틀이 2배 나면 4배 몸을 낮추고 부족하고, 2배 지위가 올라가면 6배 겸손해도 공격을 받는다는데 나는 아직도 낮춰야 할 게 많다”고 말해 하심(下心)하는 마음자세도 보였다. 황 교수는 “많은 질곡과 장애가 있었지만,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부처님께 보고드릴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



다. 앞으로 30-40년 안으로 우리가 꿈꾸는 건강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명공학 연구의 비전을 설명했다. 대담이 끝난후 황 교수는 전등사 주지 장운 스님으로부터 금니 약사여래불화를 전달받았다. 장운 스님은 “통도사 현문 스님이 부탁해 석정 스님이 직접 그린 특별한 약사여래불”이라며 “이 약사여래불을 원불로 모시고 부디 많은 중생들에게 약사여래와 같은 보살품을 베풀라”고 당부했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진주 사원련 회장 불산 스님 취임

“진주 불교의 힘을 결집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교 발전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11월 4일 진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진주시사원련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불산 스님(통암암 주지·사진)은 종파를 초월한 화합을

강조했다. 10월 20일, 진주시사원련협회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회장에 선출된 불산 스님은 가장 먼저 회원 사찰의 뜻을 모아 회칙을 제정하고 불교회관에 사무국을 마련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금담 스님, 동봉 스님 등 11명의 고문을 위촉하고 수석부회장에 천태종의 덕해 스님, 부회장에 조계종의 해일 스님 등으로 종파를 초월한 임원단 구성도 마무리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37사단 장병 수계법회



충북 증평 37사단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10월 30일 호국 충용사에서 봉행됐다. 100여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청주 대립선원 주지 지원 스님은 “불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며 “계를 받은 만큼 불자로서 더 열심히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봉은사 삼천배 철야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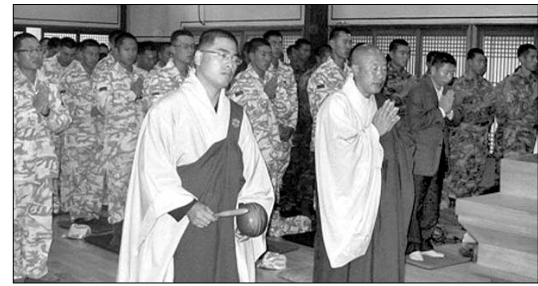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 삼천배 철야정진법회가 10월 29일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저녁 7시에 입재한 철야정진법회는 30일 새벽 4시 원혜 스님의 축원과 회향인사를 끝으로 회향했다. 이날 법회는 연말을 앞두고 한해를 돌아보고 수행생 가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족 청소년 위한 도전 골든벨



금강대는 10월 29-30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제1중학교 체육관에서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강대학교 총장배 종합지능경대회(도전 골든벨)>를 개최했다. 조선족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해 어문, 수학, 물리, 화학, 국제 등 50문제를 풀어 제1중학교 3학년 림삼 군이 일등을 차지했다.

자이툰 3진 환송법회



자이툰 3진 환송법회가 10월 23일 경기도 광주 특전교 육단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과 자이툰 3진으로 파견되는 불자장병 150여 명, 특전교육단 장병 500여 명이 참여했다. 계성 스님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라”고 격려했다.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 2돌 법회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회장 이관열)는 창립 2주년을 맞아 10월 28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인천교구중무원장 대은 스님,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위원장 선일 스님, 중부경찰서 경승교관 능화 스님과 백동산 중부경찰서장, 강화 정도사 합창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ist travel packages. It features a central banner for '부처님의 고향 "인도" - 불교 성지순례' with prices for 9th and 11th months. Below are six columns of travel packages to various Buddhist sites in China, Japan, and Tibet, including prices, dates, and details. Contact information for Se-A-Chim Travel Co., Ltd. is provided at the bottom.